

기업 집단 고발사건

해당기업체 반응

학교측 반응

“억울하다” “생각지도 못한 일”

대부분 서비스업종, 외모 필요하다 주장도

“잘한 일이다”

기업체 인식 바꾸는
계기 되길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적인 관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된 44개 업체들은 대부분 이번 사태와 관련 ‘황당하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한 채용상의 차별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행상’으로 이어져 온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체측이 위법 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법적 제재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고발 사실에 대해 신문지상을 통해 알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삼성생명
“고발 사실도 몰랐다”

44개 업체는 대부분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미도파백화점을 비롯한 6개 백화점, 조흥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삼성물산 등 25개 의류, 화장품, 제화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신세계백화점,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고발돼 여성인력 활용 의지가 큰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사실을 무색케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인사과의 황동철 과장은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 신문을 통해 알았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번에 95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원을 채용할 때도 그런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이번 채용 때 학교측에 보낸 공문에는 ‘품행端正하고 용모단정하며 대인관계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생명에 입사한 고졸 여사원은 고객부서인 창구와 보험영업소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황 과장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겠지만 호감을 주는 사원을 뽑기를 원한다. 같은 실력이라면 인상이 좋은 사람이 면접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키를 재서 합격여부를 가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교육보험
작년부터 외모규정 없었다”

대한교육보험 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그런 규정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발업체에 포함됐다. 3월 것을 한꺼번에 모았다 고 잘못 알고 있다. 우리 회사는 고졸 사원들이 입사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

문에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시험성적이 나쁘면 떨어진다. 시험성적이 좋은데 용모가 좀 떨어진다고 불합격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또 “고평법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걸리면 어처구니 없이 걸리고 또 벗어나자면 쉽게 벗어나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보람은행
“여사원이 더 유리”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여상졸업생들에게는 일반직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온 것으로 고발된 보람은행은 ‘결코 차별 채용이 아니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보람은행 인사부의 조용기 계장은 “일반직은 고졸 남녀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종합직은 대졸 남녀만 응시할 수 있다. 종합직은 회사 내 인사규정에 의해 지방발령을 받게 돼 있으나 일반직은 주거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직이 여성들에게 더 유리하다. 또 일반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원은 종합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시험기회가 있다. 실제로 16명의 일반직 여사원이 종합직으로 전직한 바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보람은행은 창사 이후 한번도 고졸 남사원을 뽑지 않았다. 결국 일반직은 고졸여사원을 뽑기 위한 직군일 뿐이다. 보람은행은 “대졸사원과 문제발생이 커서 고졸 남사원을 뽑지 않았을 뿐이지 여사원을 차별하기 위해 일반직을 분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번 고발과 관련 적법성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 위법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흥은행
“키작은 여직원 많다”

특수직 (승강기 안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용모단정, 신장 1백62이상 1백67이하, 체중 50킬로그램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으로 밝혀져 고발된 조흥은행은 “승강기 안내원 6명 중 절반 이상이 1백60센티미터가 안되는 여성들이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흥은행 인사과의 서 모 대리는 “학교측에 추천의뢰서를 보낼 때 용모단정하고 키가 적당한 사람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적은 있지만 절

대적인 채용조건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조흥은행은 특수직으로 채용한 여사원들이 일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고 있다. 조흥은행 서 대리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주택은행
“남사원도 용모 중시한다”

키 1백60 센티미터 이상, 체중 50킬로그램 근접자를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진 주택은행은 “여성뿐 아니라 남자도 외모가 좋은 사람은 우선 채용했다. 그러나 취업추천서에도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다. 은행 창구의 카운터가 높은 편이라 키가 너무 작으면 서비스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밝힌다.

주택은행 인사기획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고평법이 실질적인 노동시장상황과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한다. “우리 은행은 전체 성별 30% 이내에 들어있는 여학생을 추천 받는데 그 안에 포함된 여성들이면 일등이거나 30등 이거나 은행 쪽에서 보면 똑같다. 그중에서 뽑자면 용모와 개인적인 품성 등이 채용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별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취업추천서의 용모조건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럭키
“이미 없앤 규정”

(주)럭키 역시 고발업체에 포함 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 올상반기에 사무기술직 여사원 32명을 채용

한 럭키는 올해 채용 때부터 그런 규정을 모두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럭키 홍보실의 김동식 대리는 “32명 중 1백54센티미터 이상 1백59센티미터 이하인 여성이 13명으로 전체 40.6%에 해당된다. 특히 고평법과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미 없앤 상태에서 고발 됐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본다”고 토로.

이밖에 다른 업체도 “잘못된 관행인줄 알지만 서비스 업종의 특수성에 어쩔 수 없다”거나 “이미 없앤 관행, 억울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태와 관련 대부분의 기업은 사건자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황금희 기자〉



이번 고발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황당하다”, “억울하다”면서도 사건 수습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피고발자가 행정당국이 아닌 여성단체 등 시민조직이라는데 위함을 덜 느끼고 있는 탓도 있지만 오랫동안 ‘고졸사원’은 사무실의 꽃으로 인식해온 기업체의 마비된 인권의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이번 일로 기업체에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간 여상에서는 외모가 떨어지면 취업이 늦거나 영세기업으로 취업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조 교사에 따르면 취업을 앞둔 여상 졸업반 학생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문제는 키. 대부분의 회사가 1백60센티미터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이하인 학생들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조 교사는 키 문제로 상담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은 키를 예로 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했지만 “사회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닌 외형적인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조언”이었다고

여상에서는 쌍꺼풀 수술 정도는 일상사다. 특히 졸업반

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비밀비재. 학교에서도 특별히 단속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하는 김에 잘 하라는 말을 해주기도 한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메이크업, 패션강좌를 하기도 한다.

정릉여상 취업보도실의 담당교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체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길 바란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취업추천서에 용모 등에 관한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지만 더 많은 회사가 면접 때 그런 의식으로 임한다. 기업체가 고졸 여사원을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사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채용상의 차별행위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졸여사원에게 업무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채용상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한다.

취업률이 높은 영등포여상 취업보도실의 담당교사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지만 취업시즌이 올 때마다 학생들이 외모문제로 한바탕 몸살을 앓는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거나 화장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학교에서 제도할 수 있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난 키나 생김새를 탓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사건으로 기업체의 잘못된 인식을 깨닫기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우회에 항의·격려전화 쇄도

1백통 이상, 업무마비

한국여성민우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인 5월 26, 27일 양일간, 장충동 여성 평화의 집에 자리한 민우회 사무실은 격려전화와 기업체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

기업체들은 “당신들 때문에 인사부 전체가 불벼락을 맞고 있다”는 하소연에서부터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당신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는 항의전화와, “우리 기업체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는 한 가만 있지 않겠다”는 협박전화, “신문에는 전체 기업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던데 혹시 우리 회사도 고발 대상에 속한 것은 아니냐”는 확인전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

르겠다”는 문의전화까지 가지 각색이었다.

학부모들의 고맙다는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딸이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면접에서 키가 작아 떨어져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는 전화에서부터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며 자원봉사를 자처한 학부모들도 있었다.

또 자신이 용모제한 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밝히며 구제를 요청하는 전화도 계속됐다. 사무직 취업을 포기하고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김 아무개(21. 그룹 생산부) 씨는 “아직까지 내 성적표와 자격증 사본을 품에 품고 다니며 나를 채용

해 줄 기업을 찾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기업이 있으면 연락을 줄 수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우회의 정양희 부장은 “하루에 1백여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측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우회는 이 일이 일단락된 이후에는 똑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임시직을 채용하는 경우와 여성들만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